

資源展望과 食品工業課題

資源難의 複合的要因

世界資源情勢의 展望은 自身있게 試圖할 수 있을만큼 單純한 것이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資源問題가 突然 人類의 至大關心事化한 것이 昨年 年末부터인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世界市場에서 언제든지 必要한 量을 사들일 수 있었던 資源들이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人類를 不安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만큼 重大問題로 突變하게 되었느냐는 소리와 눈조리들이 대단하다.

돌이켜 본다면 世界の 昨年は 1年동안에 三大危機를 겹치기 當한 多難한 한해이었다. 昨年初에 通貨危機, 年中에는 食糧危機, 겨울에도 石油危機를 격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하기는 지금도 國際通貨危機가 根源的으로 解消될만한 아무런 契緣도 잡혀지지도 않은채 가가스로 小康狀態가 維持되고 있을 뿐이고 食糧은 73年產이 世界的으로 大豊作이었으며 74年產 또한 豊作이 豫想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國際市場의 食糧價格이 내려질 具體的인 兆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石油波動의 波長 역시 그 「피크」를 尺度할 수 없는 實情인 것이다.

특히 主要物資를 中心으로 하고 資源難은 單純히 特定資源自體가 지닌 理由만으로 供給力이 不足해졌다거나 價格이 비싸진 狀態가 계속 또는 더욱 深化, 上昇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主要資源「코스트푸시」에도 緣由하여 波動價格前의 線가감게 마저 되돌아 서지 못하는 것이다. 즉 다른 資源價格이 내려지는 方向으로 還元되지 않고 보니 어느 한 두 品目の 原資材값만 내려질 수 없다. 또 原資材費가(資源) 아닌 人件費, 公共料金 및 其他 一連의

尹 章 奎

(韓國產業政策研究所常任研究委員)

代價가 모두 上昇하고 있으니 이 또한 原資材 값이 高水準에서 低下 할 수 없는 與件이다.

主要資源中の 食糧 및 石油比重

지금 世界的으로 資源難이 깊숙이 빠져 있는 主要資源은 石油(石油를 主要資源에 包含시키지 않고 別途의 波動品目으로 取扱하기도 하나)·原木·原綿·牛脂·小麥·쌀·大豆·鐵鑛·古鑛·原糖·化學硃프 및 其他를 들 수 있는 데 어느 하나도 直接 또는 間接으로 現代人의 生活과 結付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大多數 사람들이 神經을 쏠리게 하는 것이 食糧과 石油難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食糧은 人間社會에 있어서 最初의 問題인 同時에 最終의 問題이며 石油은 現代人의 生存에 있어서 피(血)의 所重性을 聯想케 할 程度이다.

하기야 人類의 原始生活에서는 非穀自然食物에 食生活를 依存한 때가 있었지만 그같은 食生活樣式이 現代人에게 歷史로의 感覺을 주는 以外の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또 石油은 産業用, 發電用, 輸送用, 燃料用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直接的 또는 間接적으로 實感할 수 있는 所重한 資源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纖維其他 各種物資의 生産原料의 供給役割도 實로 多岐, 多樣하다.

石油波動은 鎮靜段階에 接近

資源情勢의 앞으로 推移를 透視하기 어렵게 된 理由로서 前述한 바와 같이 그 背景이 單純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經濟外的인 作用도 큰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大凶作後란 뚜렷한 理由가 있었다곤 하더라도 蘇聯이 昨年度에 世界의 穀倉이라 自他共認하는

美國產 小麥의 約 十分之一을 買占한 것, 그리고 역시 凶年을 겪은 中共이 競爭的으로 大量의 政治的 意圖까지 隨伴된 것으로 評價하는 側들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最近 注目되기 시작한 움직임은 資源「내셔널리즘」이 產油國以外에서도 擡頭될만한 點이다. 鐵鑛石 등을 生産하는 國家들이 國際的 모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美國, 日本 등 大輸入國들이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同時에 石油, 食糧의 資源難 特히 前者는 解消될 可能性이 成熟되어 가고 있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產油國들의 自體事情이 不一致하여 事實上的 內紛이 없지 않고, 둘째로 消費國들 가운데는 產油國과 直接去來를 開始했거나 하려는 國家들이 있으며 셋째로 石油消費國側의 主導로 國家單位의 物物交換貿易(原油와 其他物資)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고, 넷째로 原油價格에 引下再調를 指向하는 움직임을 消費國側과 產油國側에서 모두 볼 수가 있다.

一聯의 事實을 實例로 들자면 첫째의 경우는 產油國들이 지금까지는 ① 原油의 生産制限, ② 價格引上, ③ 石油會社 經營參與도를 引上하거나 國際石油資本과 產油國이 共同經營해 온 石油會社의 產油國 國有化에 成功하였다. 그러나 產油諸國의 原油埋藏量의 隔差가 甚하여 埋藏量이 많은 나라(例, 「서우디아라비아」는 75年間의 埋藏量이 있음)와 적은 나라(例, 「베네주엘라」는 15年間의 埋藏量 밖에 없음)가 있어 O P C E(石油輸出國機構)加盟國 12個國의 埋藏量「바란스」가 맞지 않는데다가 社會, 經濟의 水準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다. 「인도네시아」, 「이란」等 經濟開發計劃을

比較的 大規模로, 그리고 着實히 推進시키고 있는 產油國에서는 目前利益인 原油高價의 惠澤에 구미가 당기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앞으로 原油價高水準이 原因이 되어 國際原油消費가 激減될 時 原油輸出代金を 財源으로 計劃된 經濟開發事業의 蹉跌을 免치 못할 것을 憂慮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產油國 가운데 今後態度에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란 및 其他 그리고, 앞으로도 強硬하게 從來主張을 밀고 나가려는 나라들로는 베네주엘라, 리비아, 쿠웨이트, 알제리아 및 其他를 各各 들 수 있다. 利害를 달리 하는 產油國들의 內訌이 더져 버리는 날엔 其他與件의 變動과 더불어 石油波動이 劇적으로 解決될 可能性이 없지도 않다.

둘째로 日本을 비롯한 比較的 大消費國이 產油國과 直接去來의 길을 트기 시작하였는데 日本은 產油國으로 부터 直配原油의 輸入을 專擔할 國營公社의 新設案을 檢討하고 있을 程度이다.

세째로 原油와 其他物資와의 交換貿易도 產油國과 消費國과의 사이에 盛行될 것 같은데 「이락」과 佛蘭西의 兩國間에는 10億弗規模의 交換貿易 商談이 2月부터 本格化되었고 내세로 原料價格의 引下 再調整推進은 美·日兩國에서 顯在化 되었다. 즉 美에너지廳은 2月中旬에 배럴當 10弗의 原油값을 오는 5月の 物價統制解除(石油와 保健關係品은 除外)와의 關聯에서 7.87弗에 引下시킬 움직임이다. 그리고 日本에서도 產油國과 直接去來로 價格引下를 하되 그 幅은 배럴當 6~8弗로 伸縮性있게 다루고 있다.

以上の 實情 特히 그 中 產油國의 質的弱

點(利害不一致)으로 보아서 石油波動은 가라앉을 展望이 서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稿頭에 言及한 바와 같이 其他 原資材값이 石油波動後에 뛰어오르고 있으므로 이것이 앞으로 石油波動의 波長을 길게 할 原因中에서 큰 것으로 看做된다.

食糧難이 劇적으로 解消될까

한편 食糧問題는 石油問題 보다 훨씬 풀리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 왜냐하면 產油國은 OPEC 加盟國이 12個國에 達해 있는 事實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比較的 적은 여러 나라이므로 利害와 意見이 맞기 어려운 素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食糧의 경우는 美國 一個國이 世界의 穀倉役割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蘇聯, 中共等 大人口國이 必需量 以上の 食糧買占을 始作하게 된다면 世界 食糧事情은 好轉을 期待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74,75年度 世界 食糧事情의 前途를 더욱 어렵게 하는 두 가지의 例를 들자면 그 하나는 美國의 今年度 農產物이 豐作豫想인데도 75會計年度(74年 7月 1日~75年 6月末)의 豫算面에 反映된 平和食糧計劃이 削減된 點이고 다른 하나는 蘇聯의 昨年產 食糧이 豐作이었을 뿐만 아니라 今年產 또한 大豐의 豫想이라 알려져 있음에도 不拘하고 食糧輸入을 抑制한다는 등의 方針을 밝히지 않고 있어 꺼림직한다는 外信의 報道이다.

食糧問題를 長期的으로 내다본다면 가장 難勘스러운 人類社會의 共通難題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유엔」統計로 飢餓人口가 全體의 30%에 가깝게 되어 있다 하는 것, 또는 人口學者들이 2千年代에 가서는 世界 人口가 現在의 約 倍가 되는 80億名線에 이를 것이라고 異口

同聲하는事實등만으로도立證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昨年度世界農作收穫大勢를 그리고今年產의生産豫測을參酌하는見地에서短期(今,明年)食糧供給情勢는 밝을 수 있는 편으로展望할 수 있을 만도 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前述한 바와 같은大生産國 및 大消費國의現實情의態度가 아직短期展望마저不透明케 하고 있으니 만치食糧需給難이劇的으로만解消될可能性은 있다. 첫째,大生産國인美國의態度, 둘째,大消費國인蘇聯의 새로운態度가決定되는 날世界食糧需給難은 어느 정도解消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하기는日本도 4千4百萬名分을輸入하여食糧消費量의約40%를外國產에依存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劇的成果를 가로 막는要因은美·蘇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다.美國이2次大戰終熄後 계속해 왔던援助精神 바탕 위에서의對外食糧政策을止揚하고食糧輸出에依한貿易逆調改善에相當한期待를 걸게 되었고蘇聯은장사속(輸出)이기는하되東歐衛星國들에의食糧供給源役割을해야 하므로한 두 해의豊作이蘇聯을安心케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食品工業의 原·副資材 確保

이와 같은世界食糧事情에對處하는 한편國民生活이物資의節約을通해서健實化되게끔政府는注力하고 있다. 2月中旬에 들어서면서國務會議가 74年度糧穀管理基金 3千2百84億원의運用案을確定하였는데 쌀은一切輸入하지 않고外國產各種雜穀만 3百59億원으로(2百46萬7千섬)導入하게 되었으며 그後에는食生活改善方案으로玄米와雜穀을主食으

로 하고, 고구마 등의自然食을勸奨하며한끼한줌의節米運動을汎國民運動으로展開해야한다고各方面에서強調되어 있다.

米食生活을止揚하여야 할 것은節約을 위해서만이 아니다.粉食 등이營養價値面으로도쌀보다優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쌀消費를遞減시키고雜穀을主食化시키자면雜穀의必需量이確保되어야 하며한편工業用原副資材의對策에도關係官民이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왜냐하면食品工業은近年國民食糧문제 해결에 기여하고輸出產業으로急成長을이룩하고 있으며資本 및 技術의海外進出에도 놀랄만큼成功을하였을뿐만 아니라加速的인擴大過程에 있기 때문이다.

輸出食品은라면, 과자, 雪糖, 調味料 및 其他로서每年百%以上の輸出增進을 계속하여왔고輸出對象地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日本 등東南亞諸國은勿論, 中美, 中東, 北阿 그리고小量이기는하되東歐의「유고」에도 각각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前記한輸出品目이內需用에도充當되고 있거니와그밖에도빵, 清涼飲料, 食用香料, 「커피」 및 其他內需品目이多樣하다.

한편우리나라資本技術이海外에進出한例로는「브라질」, 「인도네시아」 및 其他를 들 수 있다. 國內工業으로는 다소 뒤떨어진 셈이나資本, 技術의海外進出에는先驅工業에處한다. 거듭強調하거니와以上과 같은食品工業의對內·外課業(輸出增進과國民食生活改善)이完遂되자면小麥, 牛脂, 原糖, 大豆 및 其他의原副資材를適期確保하여야 하며그러기 위한外換需給計劃, 貿易計劃, 資金, 稅制 그리고經營合理化等一聯의與件이綜合的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